



## 뒀다, 소탕단! 불법파견·차별·노조파괴 쓸어낸다

###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 출범 ... 2주간 전국 돌며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응원

금속노조가 불법파견과 노조파괴를 소탕하기 위해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을 꾸려 2주간 대장정에 나섰다.

다양한 탄압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현장투쟁을 벌이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응원하고, 코로나 19로 끊어진 연대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첫 일정으로 4월 12일 오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법고용·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노동부 규탄 집회를 벌였다.

소탕단은 이날 집회에서 “산업현장에 불법고용·불법파견이 번진 지 20년이 지났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지 10년이 지났다” 라면서 “그 세월 동안 노동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라고 꼬집었다.

소탕단은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1인당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파견법 19조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를 폐쇄할 수 있다” 라면서 “노동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다.

소탕단 단장을 맡은 김동성 부위원장은 집회를 통해 “노동부 앞에서 불법파견 범죄, 부당한 차별, 노조파괴 책동을 소탕하고 박멸하기 위한 본격 투쟁을 시작하자” 라는 말로 소탕단의 출범을 알렸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불법을 자행한 범죄자 자본가는 처벌을 받지 않고 부유해지고 있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라며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규탄했다.

노조 소탕단은 4월 12일 노동부 집회를 시작으로 13일 노동부 출근 선전전, 현대제철 당진공장 행진과 선전전,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14일에 포승공단 행진과 현대위아 집회, 기아차 화성공장 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와 간담회를 한다.

15일에 현대차 기흥대리점과 용운대리점 집회를 벌이고, 기아차 소하공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며 1주차 일정을 마무리한다.

2주 차 4월 19일 인천시청 행진을 시작으로 한국지엠부평 공장에서 문화제를 벌이고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의 간담회를 연다.

20일에 양재동과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와 포스코를 상대로 집회를 벌인다.

21일에 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아시아나KO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를 찾아가 힘을 보태고 국회와 산업은행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소탕단 활동 마지막 날인 4월 22일 현대중공업 계동사옥을 찾아가 하청노동자 차별과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전을 벌이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22일 15시 30분 청와대 앞 릴레이 기자회견으로 2주간의 순회투쟁 일정을 마무리한다.

# 모이자, 전국 조선소 파워공! 금속노조로

## 대우조선 파워공 투쟁지지 기자회견 ... “도장업체 사용자들 교섭에 나와야”

금속노조와 노조 경남지부 거제 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4월 12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임금인상 투쟁 승리, 전국 파워공 금속노조 가입운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우조선 파워공 작업거부 투쟁이 13일째를 맞았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 파워공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탓에 일손을 놓았다”라며 “대우조선 아홉 곳 도장업체는 파워공 요구에 따라 하루빨리 금속노조와 교섭하라. 막무가내 식 교섭 거부하는 더 큰 분노를 조직할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쥐어짜기가 대우조선 파워공 투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원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실질 임금인상을 이행할 때까지 금속노조가 이번 투쟁에 함께한다”라고 밝혔다.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대우조선해양 아홉 개 사내도장업체에서 파워공으로 일하는 노동자 150여 명이 작업거부에 들어갔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외치며 대우조선해양 서문 식당 앞에 모였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한다. 4월 13일 현재, 대우조선 파워공

작업거부 투쟁에 합류한 노동자는 400여 명으로 늘었다.

대우조선 원·하청 사용자들은 조선업계 불황을 들먹이며 하청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했다. 2020년 대우조선에서 4,000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작업거부에 나선 파워공들은 한목소리로 “임금 반 토막난 사람이 허다하다. 업체 사장들이 시급제 노동자의 기존 상여금 55% 없애고, 일당제 노동자 일당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토로한다.

한두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이어 쓰며 일상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들도 있다. 사용자는 무급휴업 강요도 서슴지 않는다. 코로나 19가 터지자 대놓고 저지르고 있다.

대우조선 파워공들은 작업거부와 함께 거동고성조선하청지회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지회는 4월 6일 대우조선 아홉 곳 사내도장업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지회는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만들었다. 지회는 ▲일당 2만원 인상(17만 원→19만 원)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 여섯 가지 요구안을 사용자들에게 전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 파워공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금속노조의 강한 의지를 알리고자 오늘 거제에 왔다”라며 “오늘부터 대우조선 스프레이도장공들도 금속노조와 함께한다. 붓으로 선박 페인트 칠하는 터치업 노동자들도 동참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내지르는 절규”라며 “사측이 버틸수록 우리는 더 확고해진다. 사용자들은 즉각 교섭에 나와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 원청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외면한 노동부와 경남도·거제시도 책임이 큰 만큼 구경하지 말고, 시급히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전국 조선소 파워공 조직화를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전국 조선소 파워공들이 대우조선과 같은 극단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며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 일하는 조선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금속노조와 함께할 수 있다. 금속노조가 조선소 하청노동자 권리 찾기에 힘을 쏟겠다”라고 약속했다.